

# 책이 좋아 책방에 사는 단골손님들

## 책구입에 월20~30만원 투자... 밥 굶어도 책읽는 '독서광'

우리는 한 달에 책을 몇권이나 살까, 책에 들이는 돈은 과연 얼마쯤 될까. 우리 주변에는 특정분야에 매혹돼 있는 '매니아'들이 있다. 책도 마찬가지로. 서점에 가서 신간을 비롯해서 책 저 책을 뒤적이는 것에서 밥먹는 일보다 더 포만감을 느끼고, 책이 읽고 싶어, 곁에 두고 싶어 거의 병이 날 지경인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전국의 서점을 다 망라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서울, 그것도 교보문고·종로서적·영풍문고·을지서적 등 4개 대형서점만을 대상으로 책을 많이 사가는 '베스트 고객'들을 뽑았다. 코너별 직원, 영업담당자들의 기억과 일부 누계를 통해 본 각 서점이 '아끼는' 우수고객들이다. 다만, 장서함의가 짙은 직업적 컬렉터들이나, 개인의 이름이되 단체 용도인듯 보이는 이들은 제외시켰다.

### "수입의 1할은 책구입에..."

먼저, 이번호 '표지인물'로 나간 양수일(경남은행 서울지점장)씨가 단골로 다니는 을지서적이다. 을지는 오피스 밀집지역에 위치한 탓에 단골 우수고객들도 역시 직장인들이 석권하고 있다. 코리아헤럴드 편집2부장 겸 외신부장인 손영수씨는 점심시간이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곳에 나타나는 인물. 외서코너와 정치·경제 신간코너는 빠뜨리지 않는 곳이다. 그는 이런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서점은 매일 갈 것, 갈 때마다 1, 2권 구입."

삼성증권 을지로지점 법인영업과장 최명찬(38)씨의 월평균 책 구입액은 15~20여만원. 20~25만원의 손영수씨보다는 약간 낮지만, 일반 샐러리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객. 본디 11조를 내듯 수입의 1할만 책구입에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자주 약속을 어기게 된다. 자신이 읽는 책은 물론 남에게 주는 선물도 그에게 반드시 책이다.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인지만 인사성술자기가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 남달 한 달 술값보다는 적고, 술대접보다는 책대접이 더 효과적이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서울신탁은행 명동지점장 정학진씨. 경남은행 서울지점장과 더불어 을지가 내세우는 단골고객이다. 적어도 1주에 2, 3권은 들르는데, 정히 바쁠 땐 비서가 대신 사가



황낙주국회의장



현승중 전총리



이한동의원



최은씨



장정일씨



문성근씨

기도 한다. "대학생 아들 책심부름도 있어 나의 액수는 '순수하지 않다'"며 "베스트는 아니고 그저 단골일 뿐"이라고. 아나운서 이숙영씨도 빠뜨릴 수 없는 단골인데, 시집·수필류의 신간 및 베스트셀러류를 많이 사간다고 직원들이 귀뿔한다.

교보문고의 베스트 고객은 교보가 북클럽제를 운영하고 있어서인지 전국에 걸쳐 있다. 개인 1위의 존재는 다소 특이한 인물. 일주일 4, 5권은 반드시 서점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한 손님이다. 이 고객은 주로 카드나 북클럽의 통신판매를 이용하는데, 개인으로는 액수가 최고다. 연락이 닿지 않아 책의 용도가 자못 궁금한데, 놀랄 만한 액수다. 지난해는 1천4백만원, 올 11월말 현재 800여만원어치의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갔다. 아쉽게도 일서에 집중돼 있다.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김진섭 교수, 경시대 한문학과 장원철 교수, 서울대 차병원 명예교수 등이 교보팬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학자들. 특히 정년퇴임을 한 지 벌써 4년이나 되는 올해 예순이홉의 차교수는 아직도 매달 교보문고를 통해 2, 30만원 가량 산다.

"물론 다 읽는 것은 아니다. 사는 책의 모두를 읽기란 어렵다. 그러나 전공관계 서적은 사두면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것은 투자다."

매달 수입의 10~15% 가량을 투자해온 것이 이미 수십년도 더 되었다는 것이 차교수의 말이다. 심리학 사회학쪽의 책은 오히려 전공책보다 더 많다. 한번씩 정리,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장원철 교수(36)의 부인은 "책값의 구체적인 액수는 남편이 절대 밝히지 않는다"고 전한다. 결혼전 시어머니로부터 "책 때문에 이사도 못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더 심해 책만지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책구입 루트가 월 30만원 가량의 통신판매뿐 아니라 고서점, 경상대앞 서점 등 다양해 액수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라고.

지난 1년간 통신판매를 통한 책구입 누계만도 300만원이 넘는 바람에 부인으로부터 '서점 금주령'을 받기도 해 요즘도 눈치를 상당히 보며 다닌다는 국민학교 교사 문대영씨. 그는 중국책에도 관심이 높아 명동의 '중화서국' 인사동의 '동문선' 동승동의 '삼륜서점' 등도 즐겨 찾는다. 그가 책을 사모으기 시작한 것은 86년부터, 집의 서가를 정리하는 일도 큰 취미다.

망우동에서 동진석유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인(67)씨는 "교보 영풍 종로의 인문·역사코너 서가에 무엇이 꽂혀 있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는" 고객이다. 그의 관심은 '역사'.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너무 심하다 싶어 실체를 알기 위해 시작한 것이 역사공부. 그의 독학에 의하면 특히 상고시대, 고대사 부분에 왜곡이 "너무 심하다". 개인사업을 하는 탓에 책 사는데 그리 돈을 아끼지 않는다. "꼭 갖고 싶기는 한데, 너무 비싸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구할 수도 없게 된 몇번의 경험 때문에 화집·도록 같이 비싼 것도는 딱감고 사버린다"고. 고령임에도 젊은 사람들처럼 1주에 2, 3권은 기본, 딱딱하고 어려운 책은 1권꼴로 읽어치운다.

### "1주에 두세권 읽는 건 기본"

이밖에도 교보문고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정계인물로는 현승중 전총리가 있고, 조순 전부총리도 단골고객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한달에 두어번 들른다. 홍재형 경제기획원장관 또한 자주 왔는데 입각 후에는 발길이 뜸하다고. 이들 관료나 국회의원들은 국내서보다 외서를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교보 일서코너의 임강세씨에 의하면 동자부 차관 박봉환씨, 이한동(국회의원)·황낙주(국회의장) 의원 등도 단골고객들이다. 이밖에도 변호사 김태경·김인화씨 등은 한달에 한두번 들르지만 한번 나오면 몇백만원씩 구입해가는 경우가 허다해 직원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영풍문고에는 교육방송 심의위원 홍중학씨, 국회의원 이종찬씨, 장서가협회 신영길 회장, 출판평론가이자 서울신문 논설위원인 이종한씨 등이 있다. "자주 오는 것과 많이 사는 것이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자주 오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

# 만화로 보는 국제화 시대의 세계 경제

대입수험생 · 직장인의 경제교양필독서

지금세계는 경제월드컵—우리는 간다!  
21세기 新한국경제비전을 제시합니다.

사회과학부문 공전의 베스트셀러 「자본주의 · 공산주의」  
「한국, 한국인, 한국경제」에 이은 이원복교수의  
경제만화시리즈 완결편—「국제화시대의 세계 경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던 세계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교양필독서입니다.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원저: 송병락(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글·그림: 이원복(덕성여대 산업미술과 교수)  
정가: 5,500원

1탄  
자본주의 · 공산주의 □정가: 5,000원

2탄  
한국 · 한국인 · 한국경제 □정가: 5,000원

냐”는 것이 서점측의 말. 한림대 이기백 교수, 영남대 유홍준 교수 등도 영풍문고를 자주 찾는 이들. 유교수는 한달에 2, 3번, 잦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오면 메모를 해와 여러권을 구입해 간다.

장서가협회 신영길 회장은 자주 오고 많이 사가는 대표적 인물. 은행가 출신으로 국보급 고서들만 해도 적잖게 가지고 있는 그는 주 2, 3회 영풍을 찾아 ‘장서가’답게 한달 통틀어 70여권 가량 구입해간다고 극상하 영입이사는 전한다. 홍중화씨가 영풍의 단골맨이 된 이유는 종각지하철에 내리면 바로 서점입구이기 때문. 무겁게 들고 오지 않아도 카드로 신청해 놓으면 집에까지 우편으로 보내주는 편리함도 그가 영풍을 애용하는 이유다. 연극, 영화, 교육코너가 그가 주로 들르는 곳.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서적은 양재동의 ‘대한성서공회’, 고속터미널 부근의 ‘엠마오 서적’을 주로 이용한다. 영풍에서 사는 책은 한달 통틀어 4~5만원 가량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들르는 집 인근의 서점까지 합하면 가족이 책에 투자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다.

종로서적이 첫손꼽는 손님은 작가 최윤(서강대 불문과 교수, 본명 최현무)씨와 역시 작가 장정일씨, 그리고 영화배우 문성근씨 세사람이다. 물론 이들만큼이나 자주 오고 많이 사가는 단골들도 있지만 기록을 남기 때문에 얼굴만 알 뿐이라고. 문인들 사이에서도 책 많이 사기로 소문난 장정일씨는 요즘 서점행이 약간 뜸해졌다. “인생관이 바뀌어서”다. “많을 땐 한달에 20만원어치도 샀는데, 요즘은 통 사지 않는다.” 이유는 “죽었다 살아나도 다 못 읽을 책이 대구에도 서울에도 있다”며 “내 평생 다시는 책을 안사리라”는 게 그의 요즘 다짐이다.

배우 문성근씨도 1주 한번은 들르는 단골. 그가 얼마나 자주, 무슨 책을 얼마나 사가는지는 서점 여직원들의 눈에 일거수일

투족이 입력돼 있을 만큼 ‘역시 유명인’이다. 그는 통신고객포인트인 ‘책사랑’ 회원으로 연극 영화 서적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의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책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때로 부부싸움의 원인 되기도

서점인들이 꼽는 ‘우리서점의 베스트 고객들’은 잦게는 거의 매일, 적어도 1주에 두세번은 서점 나들이를 하는 이들이다. 또 그들은 신문이나 갖가지의 채널들을 통해 얻어진 도서 정보를 가지고 서점에 나와 공간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박재언씨의 말마따나 어느 서가에 무슨 책이 있고 이 서점에 없는 책은 저 서점의 어떤 코너에 가면 있다는 등 책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책은 첫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를 반드시 다 읽어야만 책 환권을 다 보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오래전부터 탈피해 있는 사람들이며, 필요한 10페이지만을 읽어도 완전한 독서가 가능함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가 결혼한 남자라면 아내에게 책값의 일부를 속이는 애교있는 거짓말도 곧잘 한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보문고 북클럽 회원 강상호(자영업, 34)씨의 부인은 “지난달에는 책값만 50만원이었다”며 “자신은 좋아서 하지만 애들이랑 살림사는 나로서는 미칠 노릇”이라며 “웃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공부가 업이 아닌 사람으로, 주변에 책을 많이 사 읽는다 싶어 물어봐도 월평균 5만원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출판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한달 책구입비는 1만원이 채 안된다. 이들에 비해보면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5만원 이상 50만원 가량 투자하는 이들은 분명 독서 매니아들이다.

—정혜옥 기자

## 표지의 말

경남은행 서울지점장 양수일씨(52). 을지서적 직원들 사이에 낮은 인물이다. 점심시간 인문사회 코너에서 책을 훑어보고 있는 그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72년 경남은행에 입행하여 서울지점에만 15년을 있었다. 은행직원들 사이에 그는 매우 박식한 지점장으로 통한다. 각종의 예화를 곁들여가며 이야기를 끌어가는 직원회의는 은행내에서도 유명하다. 불시에 찾아가던 지점장실 책상위에는 「상고사의 재발견」 「오리엔탈리즘」이 놓여 있다.

“  
오직 생존을 위해  
숨죽여 울어야 했던  
김신조의 최초의 고백  
자유롭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뼈아프고 등시된 사연들!  
”

김신조 자전적 에세이

##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이제, 수많은 꼬리표를 떼고  
솔직히 털어 놓고 싶다!

“  
무장공비  
지수간첩  
간첩의 대명사  
반공연사 1호  
나—김신조  
이제 수많은  
꼬리표를 떼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

북에서 27년, 남에서 27년  
진정 그에게 있어 남쪽은  
따뜻한 나라였는가?  
이제는 더이상 공비도 아닌,  
반공연사도 아닌 한 인간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나의 삶,  
나의 자유, 나의 역사에 대해  
털어놓는다.  
이데올로기가 만든, 분단사가  
만든 악역 김신조.  
더 이상 나에게 꼬리표를 달지  
말아다오.



정가: 5,500원

동아출판사  
☎861-4818